

오피니언

다산포럼

유지나



남성은 무엇으로 사는 지, 나는 잘 알지 못한다. 여성으로 살아왔기에 나는 당연히 남성이 무슨 욕망과 꿈으로 복잡다단한 삶을 헤쳐나가는 지 경험한 바가 없다.

그러다가 신정아씨가 자신을 성추행한 권력층 남성들을 폭로한 책으로 화제가 되는 사태를 보면서 마음이 아팠다. 진위 여부가 어찌 되었건 우리 사회 권력층 남성들은 에로스 문화로부터 어쩌다 이토록 소외되어 버린 것일까? 그리하여 성과 권

회국'을 만들어 내기에 이르렀다. 권력과 성의 함수관계는 권력층 남성들이 밀실에서 벌이는 업무와 유흥이 만발하는 '룸살롱회국'을 형성하고 있다. 고 장자연씨의 2년전 진실 문건에 따르면, 언론, 방송, 재계 등 권력층 남성들은 아리따운 여배우의 성접대를 받으며 그녀를 능욕했다. 좀더 참고 견디면 출세할 것이라는 기대로 버티기에 과도한 성추행이었다.

이 은밀하게 전수해 온 법칙일까? 유독 간통죄가 여전히 존재하는 사회이기에 이런 위선적인 작태라도 벌여야 스트레스가 풀려서 그런 것일까? 나는 알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이없는 사태가 침묵에 갇히는 것을 보면서, 남성도 제대로 사랑할 권리가 있는 존재로 거듭나 살아갈 희망할 뿐이다.

남성은 무엇으로 사는가?

력의 함수관계가 이토록 파행적으로 결합하는 양상 속에서 공허함과 우울증, 결국 불행지수가 팽배한 사회가 돼 버린 것은 아닌 지, 처참한 심정도 들었다. 양성의 가치를 대비할 때 흔히 남자는 권력, 여자는 외모라고 말한다. 물론 실력 중심의 양성 평등사회를 지향하는 시점에 그런 대비는 퇴행적이건만 그래도 여전히 지배적인 기준처럼 작동하고 있다. 외모도 실력의 하나라고 믿기에 '성형공

권력층이건 아니건, 나이 든 남성이 젊고 어린 여성을 좋아하는 것은 이해가 간다. 알려진 아리따운 여성 연예인을 좋아하는 것도 이해가 간다. 그렇다면 자신이 좋아하는 만큼 상대의 맘에 들기 위해선 상대를 인권을 가진 주체로 대해야 할 것이다. 상대에 대한 존중이 기본인 에로스정신을 버리고 상대를 그저 일개 성노리개로 대할 수 있는 것이 권력의 힘이라고 누가 알겠는 것일까? 권력을 가진 소수 남성들

남녀상열지사의 병폐가 공익을 해쳐며 지속적으로 터지는 이 사회에 진정 필요한 것은 사랑하는 법을 배우아가는 일이다. 권력을 갖더라도, 그에 더하여 사랑하고 싶은가? 성을 원하는가? 그렇다면 상대를 자신과 같은 인격체로 대하고 마음의 소통과 몸의 소통이 합치되는 통합적인 관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런 관계만들기가 남성이 살아가는 방식이기를 사회적 우울증 치료를 위해 희망한다. <동국대교수·영화평론가>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정부, 비축쌀 방출 시기 신중히 결정해야

정부가 최근 2010년 산 비축쌀 5만톤을 시중에 방출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급등세를 보이는 산지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다.

특하기 어렵다는 게 농민들의 반응이다. 우선 비축쌀의 조기 방출은 모처럼 으뜸세를 보이는 쌀값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의 으뜸세는 지난해 폭락세를 만회하는 회복단 계이며 지난 5년 평균 쌀값(14만9000원)에 불과하다. 조기 방출이 너무 서두른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단경기를 3개월 이상 앞둔 3월에 정부 비축쌀을 풀겠다는 정부의 이번 발표는 매우 이례적이다. 공공비축재가 도입된 2005년 이후 정부 비축쌀 판매는 모두 6~8월에 이뤄졌고, 그나마 2008년 8월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조기 방출이 수확기 쌀시장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우려도 있다. 지난해 쌀 수확기에 정부는 "추가 격리 물량은 가격 급등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상용으로 2011년에 시중에 방출하지 않겠다"며 산지 양곡유류업체에 비 매입을 독려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방출한다면 어느 업체가 유통수확기 비 매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는가.

정부는 비축쌀 조기 방출이 작년 수확기 이후 산지 쌀값이 8.5%나 상승했고,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견잡을 수 없이 오를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기 방출은 남

쌀값만 잡는다고 물가가 안정될 수는 없다. 따라서 정부는 농촌의 현실과 시장 상황에 맞게 비축쌀 방출 시기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전남교육 현실 반영한 '거주자' 가산점 부여

전남도교육청이 교장·교감을 비롯해 본청 주요 보직과 관련한 승진·임용 대상자가 전남지역에 거주하면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장만재 교육감은 최근 열린 간부 연찬회에서 내년

여건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공병불에 그칠 공산이 크다. 정주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상황에 거주하면 가산점을 이기지만 한다면 부작용만 양산할 뿐이다. 도교육청은 교직원들이 전남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기존 전체 임대자

지난 1986년 광주·전남교육청 분리 이후 자녀교육·생활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광주지역에 거주하는 교직원 등이 늘면서 나타난 각종 부작용을 바로 잡겠다는 것이다. 교육정책이긴 하지만

도교원들은 교직원들이 전남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기존 전체 임대자 급 지원 규모를 늘리고, 사택에 대한 리모델링 및 권역별도 교원 다수가 생활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지만 사전 충분한 여론 수렴과 예산 확보 등이 수반되지 않으면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다.

광주에서 출·퇴근하는 교사들이 방과 후 곧바로 퇴근해 학생지도 공백 사태가 발생하고, 인사 때마다 광주와 가까운 화순·나주·담양·장성 등 특종지역 선호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런 취지가 좋더라도 현실

또한 단순히 거주지를 근거로 인사가산점을 줄 경우 친인척 등의 명의로 거주지만 옮겨놓고 살지 않는 위장전임을 양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지역교육 살리기는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전남교육의 미래를 위한 진실보한 조치라는 점에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당부한다.

NGO 칼럼

이희한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의 많은 분야에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성으로 살아 가고 있다. 물론뿐만 아니라 서비스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어떻게든 소비자의 선택을 이끌어 내고 지속구매가 가능한 우수고객으로 유지하기 위해 많은 돈을 투자해 각종 홍보활동을 한다. 요즘은 소비자의 감성을 일깨우는 이미지 홍보가 대세이다.

이런 '소비자 협동조합운동'은 19세기 중반 자본주의의 부조리가 발생하기 시작한 영국의 북부지방에서 호시를 찾을 수 있다. 이후 유럽 여러 나라와 북미, 아시아 각지에서 시작되었다. 일본과 우리나라에서는 생활 속의 일들을 주제로 삼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라는 이름을 쓰게 되었다. 줄임말로 보통 '생활'이라고 부른다. 우리나라 생활협에서는 국내산 친환경 농산물과 가공품, 우리 밀 제품을 생산하여 유통·구매하는 활동을 한다. 한마디로 '계약생산-책임소비'로 표현

윤리적 소비가 협동사회 이끈다

이야기이다. 소비자들은 작각 속에 살기 쉽다. 본인의 선택이 그리 합리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단지 돈벌이 수단으로 대상화되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간다. 이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소비자는 주도권을 완전히 포기하게 될 것이다. 정확한 정보는 특수한 소수 자본 생산자의 전유물이 될 것이고 이런 불균형은 불평등의 심화를 낳을 것이다.

본인. 생산자와 소비자는 서로가 합의한 물품의 취급기준을 바탕으로 신뢰를 구축한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생산정보를 자세히 기록하여 정보를 공유한다. 즉 우리 농업을 지키고, 안전한 먹을거리로 소비자의 생활을 보장하며, 환경을 보호하는 '윤리적 소비'를 확대하는 것이 생활의 주요 목적이다. 이 윤리적 소비는 윤리적 생산과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일구어내는 협동의 경제는 나눔의 경제활동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소비자협동조합'이라는 조직이 있다. 소비자 개개인들의 힘만으로는 바른 정보도 합리적인 선택도 불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생겨난 조직이다. 소비자들이 직접 생산과 유통의 정확한 정보를 알아내어 선택할 뿐 아니라, 원하는 물품과 서비스를 협동의 힘으로 직접 만들어 내는 조직이다.

몇 년 전부터 세계경제위기의 대안을 모색하는 연구들이 활발해지면서 기존의 경제학 패러다임과는 다른 '사회적 경제'에 대한 논의가 대두되고 있다. 바로 생활의 '나눔의 경제', '협동의 경제'가 세계경제위기의 대안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소비자들은 당장의 싼값과 달콤한 입맛만을 위한 생산을 원하지 않는다. 환경을 보호하고 건강을 지켜내는 생산, 그리고 약한 자와 어린이들의 노동력을 착취하지 않은 생산을 바란다. 그러려면 생산자와 소비자는 협의와 협동이 필요하게 되고 이 협동 경제의 결과는 나눔이다. <아이쿱빛고을생활협시사장>

다. 생산자와 소비자는 서로가 합의한 물품의 취급기준을 바탕으로 신뢰를 구축한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생산정보를 자세히 기록하여 정보를 공유한다. 즉 우리 농업을 지키고, 안전한 먹을거리로 소비자의 생활을 보장하며, 환경을 보호하는 '윤리적 소비'를 확대하는 것이 생활의 주요 목적이다. 이 윤리적 소비는 윤리적 생산과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일구어내는 협동의 경제는 나눔의 경제활동이 되는 것이다. 몇 년 전부터 세계경제위기의 대안을 모색하는 연구들이 활발해지면서 기존의 경제학 패러다임과는 다른 '사회적 경제'에 대한 논의가 대두되고 있다. 바로 생활의 '나눔의 경제', '협동의 경제'가 세계경제위기의 대안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소비자 개개인들의 힘만으로는 바른 정보도 합리적인 선택도 불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생겨난 조직이다. 소비자들이 직접 생산과 유통의 정확한 정보를 알아내어 선택할 뿐 아니라, 원하는 물품과 서비스를 협동의 힘으로 직접 만들어 내는 조직이다. 소비자들은 당장의 싼값과 달콤한 입맛만을 위한 생산을 원하지 않는다. 환경을 보호하고 건강을 지켜내는 생산, 그리고 약한 자와 어린이들의 노동력을 착취하지 않은 생산을 바란다. 그러려면 생산자와 소비자는 협의와 협동이 필요하게 되고 이 협동 경제의 결과는 나눔이다. <아이쿱빛고을생활협시사장>

기고

임내현



금호타이어가 사상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걱정들이 많다. 공장은 스톱되었는데 중국에서는 리콜사태가 나서 '내우외환'을 겪고 있으며 더욱이 채권단은 자금지원을 철회할 뜻을 밝혀 위기가 한층 고조되고 있다고 한다. 필자는 2005년 9월 5일 금호타이어가 창립기념일에 노사 양측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은 것을 큰 기쁨으로 생각하고 있다. 회사측의 설명에 의하면 1987년 6월 10일 소위 민주항쟁 이후 북돋워져 온 노사분규 속에서 한 해도 거르지 않고 파업을 거쳐야만 일단협체결을 했었는데 2005년에 처음으로 파업

받았다. 무분규타결이라는 귀중한 성과는 기본적으로 노사양측의 성의있는 대화노력의 결과로 본다.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과거의 대립투쟁형에서 대화와 타협형으로 노사문화를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한 뜻있는 지역인사들의 헌신적인 노력도 적지 않은 역할을 하였다. 그 후 2007년까지 무분규타결이 이루어졌다. 21세기는 무한경쟁의 세계화시대로

금호타이어 분규 타결될 수 있다

없이 평화적으로 협상을 마쳤고 이와 같은 합리적 노사문화형성에 기여한 감사의 뜻이라는 것이다. 2004년 필자는 광주교점장으로 근무하면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과 학생공장을 각각 방문하여 근로자들과 함께 식판을 들고 배식을 받아 점심식사를 하면서 근로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 또 노사화합 노력을 경주해 온 지역인사들을 만찬에 초청하여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어 모두 발언할 기회를 주기도 했다. 검찰기관장의 초청이 이례적인데 통상의 노사정 간담회 분위기를 훨씬 뛰어넘는 진솔하고도 유쾌한 분위기가 형성되자 노조 간부들과 협조적인 발언이 나오는 등 후호적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 모임은 당시 금호타이어 대표이사께서 계속 이어갔는데 노사간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했으리라 본다.

서 어느 분야든지 일류가 되지 않고는 살아남기 힘들다. 일류라 하더라도 1등과 2등의 차이는 엄청난 것이 되고 있다. 이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제로섬 게임'을 할 것이 아니라 노사 협력으로 경제적 성과를 극대화시킨 다음 양쪽 다 크게 분배받는 '윈-윈 게임'을 해야 할 것이다. 사용자측은 노사평의에 있어서 적법성을 따지는 것 이상으로 노동자들과의 인간적 소통을 강화하는 성의가 필요하다. 또한 노사분규가 발생하기 전 예방에 노력하고 그 과정에서 종래부터 노사화합을 위해 애써 광주 지역인사들의 도움을 받는 지혜를 발휘했으면 좋겠다. 작년에 적지 않은 임금감각을 흔쾌히 동의한 노조 측의 입장이 이해가 가는 점이 많긴 하나 기업을 살려야 노동자의 권리와 제대로 보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 대화에 임해주시기를 바란다. 회사사 어려움은 겪는 이 때야말로 금호타이어가 노사화합을 이루어야 할 때이다. <전 광주교점장>

없이 평화적으로 협상을 마쳤고 이와 같은 합리적 노사문화형성에 기여한 감사의 뜻이라는 것이다. 2004년 필자는 광주교점장으로 근무하면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과 학생공장을 각각 방문하여 근로자들과 함께 식판을 들고 배식을 받아 점심식사를 하면서 근로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 또 노사화합 노력을 경주해 온 지역인사들을 만찬에 초청하여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어 모두 발언할 기회를 주기도 했다. 검찰기관장의 초청이 이례적인데 통상의 노사정 간담회 분위기를 훨씬 뛰어넘는 진솔하고도 유쾌한 분위기가 형성되자 노조 간부들과 협조적인 발언이 나오는 등 후호적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 모임은 당시 금호타이어 대표이사께서 계속 이어갔는데 노사간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했으리라 본다. 필자는 2004년 연말에 노사양측에 노사화합의 필요성을 간절히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연하장을 노사 양측 간부들에게 보내고 몇분으로부터 답장도

지리적표시제 등록 품목 소비 촉진책 마련해야

우리 국민은 지리적표시제도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 같다. 지리적표시제는 농산물과 가공품의 명칭 또는 품질이 특정 지역의 기후 풍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 지역명칭 사용의 브랜드를 보호해주는 배타적 권리를 말한다. 이는 그 상표나 언어를 상업적으로 무단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이를 어길 경우 로열티 문제가 발생한다. 우리나라도 '보성녹차'를 비롯해 46개 품목이 지리적표시제 품목으로 등록돼 있다. 하지만 선진국에 비하면 미미한 실정이다.

오래전 이 제도를 도입한 유럽연합에는 약 600여개의 품목이 지리적표시제에 등록돼 막대한 부를 창출하고 있다고 한다. 지리적표시제가 농산물의 고유품질 및 브랜드를 지켜주고 농촌 개발 및 관광산업과도 연계시킬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이제 지리적표시제 등록품목과 일반제품과의 차별화를 이용한 소비촉진책을 마련해 우리 농산물과 가공품의 고유 브랜드를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동참했으면 좋겠다. <▲박진익·목포시 서산동>

無等鼓

요즘 '세시봉'(C'est si Bon)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 프랑스어로 "참 좋다", "매우 좋다"라는 뜻의 세시봉은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를 풍미하며 청년문화의 산실이 된 통기타 라이브클럽의 이름이다. 당시 서울 무교동에 있던 음악감상실 '세시봉'을 동지로 삼은 송창식·윤형주·김세환 등 젊은 가수들은 주옥같은 노래로 당대를 풍미했다. 지금은 50~60대의 장년이 되어 있는 당시 10~20대들은 그들의 노래와 함께 청춘을 보냈다. 한때 기요계를 주름잡았던 세시봉 가객들은 어느덧 희끗희끗한 머릿결과 함께 중년 대우를 받는 위치가 됐다.

시봉의 선율에 감흥하고 있다는 점이 다. 화려한 댄스와 때론 압축처럼 여겨지는 노랫말로 만들어진 그들의 음악 세계에 젖어있던 아이돌 세대들이 아버지뻘을 훨씬 넘는 세시봉에도 힘써 팔려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세시봉의 노래에는 세대를 넘나드는 '낭만'이 있다. 정치적으로는 혹독한 군사독재 시절이었지만 그들의 노래는 크게 낙담하거나 슬퍼하지 않았다. (일부 민중가요 성격도 있었지만)현실에 대한 풍자와 희망을 품은 가사, 마음 구석까지 노크하는 리듬에 최고의 가창력이 어우러져 태어난 '세시봉'이 오늘에 되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세시봉'



최근 이들이 전국 투어 행렬을 이어가며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면서 '세시봉'이 대중문화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그들의 팬은 아직도 통기타와 열정, 낭만으로 세상을 읊던 수십 년 전의 모습 그대로를 뇌리에 간직하고 있다. 특이한 것은 '아이돌' 세대들조차 세

이 대목에서 50년 만에 돌아온 '2011년 세시봉'이 던지는 메시지를 예상할 수 있다. 정치는 유권자의, 상인은 손님, 공직자는 주민의, 서책은 독자의 '심금'을 자극해야 그만큼 생명력을 지닐 수 있다는 사실을 반주해 준다. <박진익 사회부장 unipark@kwangju.co.kr>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Table with 2 columns: Kwangju Ilbo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circulation data.